

#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문화인류학회 엮음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전경수

서울대 교수 · 인류학

인류학자를 가리키는 대명사 중에 '직업적 이방인' 또는 '전문적 주변인' 등의 용어가 있다. 학문이라는 이름하에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 타문화에 잠입하여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 인류학적 현지연구다. 이방인이 되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인류학자다.

## ‘나’를 보기 위한 과정

이방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류에 대한 이질적인 요인이며, 그 이방인이 만나는 상황은 '낯선 곳'일 수밖에 없다.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서 주류사회의 생활방식을 익힌다는 것은 낯선 곳을 낯익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문화라는 맥락이 주어진 상황에서, 낯선 곳이 낯익은 곳으로 되는 과정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누가 얼마나 깊이 더 알게 되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만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나'다. 낯선 곳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게 되는지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차 해결할 일이지만, 낯선 곳에서 처음부터 부딪치는 문제는 '나'의 문제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이라는 상황이 곧 인류학적 작업의 과정이다.

세계는 우리에게 낯선 곳이다. 낯선 곳을 낯익은 곳으로 전환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중교육의 방식이 인류학의 보급이라고 생각한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 인류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준비하는 세계화다.

한국문화인류학회가 인류학 지식의 대중적 보급을 위해서 젊은 연구자들을 동원하여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한 이 책의 특징은 어려운 얘기를 아주 쉽게 풀어내었다는 점이다. 타문화의 이해과정과 결과로 나타난 것을 민속지(또는 민족지)라고 한다. 문화의 이해는 본질적으로 번역의 과정을 경과할 수밖에 없고, 번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의 함정들이 나에게 낯선 세계를 안겨주게 마련이다. 그러한 함정들이 없다면, 우리에게 낯선 곳이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정을 쉽게 풀어내었다는 것은 외부에서 생산된 지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체화되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는 젊은 학도의 수준은 이제 더이상 외국이론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외국에서 만들어진 논의를 우리말로 충분히 소화해내는 토착화의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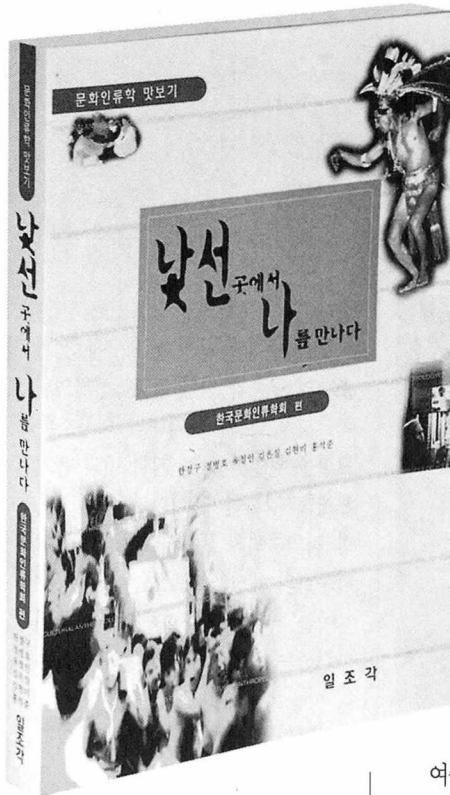
사람은 스스로 볼 수 없는 생물학적 존재다. 골격과 눈의 위치 그리고 우리 몸의 생김새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는 나 스스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거울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나의 모습을 안다. 거울이 없는 경우, 나는 남의 설명에 의해서 나를 알 수 있다.

## 세상을 골고루 보여주는 텍스트

남이 설명해주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나는 남이라는 상대의 두 눈동자에 각인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결국 사람이란 남이 없으면, 나를 볼 수 없는 존재다. 나를 보기 위해서 남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인류학자다. 도시들은 앉아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만, 인류학자는 나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남을 보는 측면이 있다.

이 책에 소개된 19편의 글은 이 세상을 골고루 보여주는 텍스트이며,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대하고 있는 세계화라는 문제의 수준을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시켜주고 있다. 세상의 삶은 인류학자로 하여금 더이상 전문적 주변인으로만 남아 있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상한 세상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류학자가 아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모두 우리의 삶 속에 깊이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 비판과 건강의 민속지나 회사 민속지 그리고 환경 민속지는 지금 당장 나와 내가 봉착한 현실적인 문제다. 현실적인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보면, 또는 너무 가까이서 문제가 전개될 경우에,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사각지대에 남겨두기 쉽다. 가장 현



여가는 네바다 사막의 인디언이나 카자흐스탄의 세미랴라틴스크의 알타이민족 조상일 수도 있다. 아니면, IMF로 실직당한 서울역의 노숙자들이나 강남제무서 또는 청와대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겁의 거울들이 있다는 점을 이 책은 하나의 본보기로 보

여주고 있다.

세계화라는 구도 속에서 너무나도 촌놈 짓을 하고 사는 반도의 사람들. 이 세상이 온통 낯설기만한 반도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넓은 세상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주장만 있지, 그 넓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는. 시점에서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준비된 세계화의 방법론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다. ◆

일조각/A5신/338면/9000원

실적인 문제와 그 문제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내가 상호 소외되어 있는 경우를 인류학자들은 민속지의 현실로 간파하고 있다.

낯선 곳에 있는 남들의 한가운데서 나는 조금씩 조금씩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게 마련이다. 그 낯선 곳은 에스키모가 사는 툰드라일 수도 있고, 폴리네시아의 니우에 섬일 수도 있고, 뉴욕 한복판의 할렘이나 증권시장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이천년 전 알프스의 설산일 수도 있고, 육천년 전의 암사동 한강변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제국주의자들의 원폭실험으로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

# ‘돈’의 인류사적 탐사

윌리엄스 편저 《돈의 세계사》

현대사회에서 돈은 유무형의 물질 이전에 살아 있는 존재로 인간을 압도하고 있다. 돈은 열렬한 관심의 대상이자 윤리 도덕의 잣대였으며 개인이나 국가간의 갈등과 경쟁, 심지어 전쟁의 원인이기도 했다. 이 책은 그처럼 유기체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돈’ 그 자체에 주목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문명, 그리스와 로마시대를 거쳐 중세유럽과 인도·중국·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돈의 인류사적

탐험을 시도한다. 특히 저자는 근대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돈의 역할이 커지는 과정을 통해 돈의 본질과 개념에 다시금 의문을 던진다. 오늘날 돈으로 모든 가치를 매기고 교환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개념은 돈의 역사상 단연코 '이단적'이라는 결론이다.

최초의 주화는 기원전 7세기말에 나타나지만 은 같은 귀금속을 저울로 재서 돈으로 이용한 것은 기원전 2~4세기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다. 기원전 600년경 등장한 주화에

# “일본문학 출판 아닌 일본문학을 얘기했다”

## 고정일씨께 드리는 편지

이문재

시인 · 문학동네 주간

“아직 한 번도 빈 적이 없지만, 한국 현대 출판 100년을 이끌어온 대선배 가운데 한 분이실 고정일 사장님께 인사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82년부터 시를 써왔고, 84년부터 줄곧 기자로 일하다가 지난 4월1일, 출판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채 백일이 되지 않은 ‘초보 편집자’입니다. 《시사저널》에 9년 가까이 재직하는 동안, 문학 출판담담을 맡아 줄곧 출판계를 기웃거렸지만, 과묵한 닥인저 고사장님의 존함은 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면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출판저널》 제236호 특집란에 기고한 글 〈‘일본’ 문학도 없고 일본 ‘문학’도 없다〉에 대한 사장님의 글(〈구썬한 시대에도 일본문학은 있었다〉 제238호)을 잘 읽었습니다. 이제 막 출판계에 입문한 ‘헛병아리’에게 출판계 대선배께서 내리신 질타와 충고는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보아도 제 글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읽으신 것 같기에 감히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일본문학에 대하여 글을 쓴 것이, 일본문학의 출판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제 글의 제목과 부제(〈일본문학, 그 한계와 가능성〉) 어디에도 ‘출판’이란 단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문학 ‘출판’ 목적을 들이대시니 곤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글을 읽고, 비행기 활주로에 들어가서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교통경찰관을 떠올릴 만큼 난감했습니다.

둘째, 저의 글이 상투적 정서에 의존했다고 지적하셨는데, 16년째 시를 써오고 있는 제가 가장 금기시하는 것이 바로 ‘상투성’입니다. 저는 오히려 사장님께서 일본 순수문학이 국내에서 많이 읽히지 않는 까닭을 분석하신 대목이 상투적으로 보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진지한 것이 조롱받는 사회, 문화기획자들의 미숙함과 상술, 가벼운 것이 판치는 현실, 젊은이들의 분별 없는 독서 등이 일본 순수문학이 폭넓게 읽히지 않는 이유라고 꼽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같은 분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투

적 정서’를 넘어서 분석도 아니라고 봅니다.

셋째, 사장님께서 제가 어리석은 자들이 일본문학의 무한한 자양분을 놓치고 있음을 과시적으로 지적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고 언급하셨는데, 진정한 문학이라면 그것이 아프리카 문학이든 북극문학이든 거기에는 분명한 자양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이 아니라 문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본문학과 영국문학은 지역적 차이 때문에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글이 ‘과시적’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자기 이름을 달고 쓰는 글, 특히 논평을 하는 글은 그 정도와 형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좋은 의미에서 ‘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과시를 하는 서툰 문장’이 ‘나쁜 과시를 하는 좋은 문장’보다 낫다고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감히 짐작컨대, 사장님께서 후배 출판인들이 한국 현대출판 100년의 무게와 대선배들의 업적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제 글을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출판계에 입문한 ‘헛병아리’이지만, 그 대선배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 출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판 경력이 곧 대선배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쓴 기사 가운데 하나가 지난 2~3월에 있었던 도매상 부도사태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 달 넘게 출판계와 도매업계를 뛰어다녔지만, 젊은 출판인들로부터 ‘대선배들이 계셔서 든든하다’라는 말을 들 어보질 못했습니다.

사장님의 ‘반론’은 저에게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시를 쓸 때는 ‘상투적 정서’를 경계하고, 책을 만들 때는 ‘스탠리 언윈 경이 말하는 출판의 진실’을 늘 염두에 두겠습니다. 저의 출판사에서 내년 초쯤 하루키보다 몇배 뛰어난(제 개인적 판단이지만) 일본 현대문학의 대표작가 마루야마 겐지의 ‘잘 안 팔리는 소설들’을 펴낼 예정입니다. 눈여겨 보아주시시오.” ❖



는 사자나 수사슴, 양 모양의 동물을 새겼다. 값싼 청동으로 저가치 주화를 만든 것은 기원전 5세기말 남부 이탈리아. 그리스 전체에 확산되자 스파르타와 전쟁을 치르며 새로운 수요에 직면했다.

로마는 남부이탈리아의 주화 제조기술 등을 그대로 도입해 통화체제를 이뤘다. 로마가 해외에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주화는 불가결한 요소였다. 아우구스투스황제는 그의 자서전에서 공공재정이나 퇴역군인에게 기부한 돈이 6억 테나리우스였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다.

이슬람세계에서 돈은 속세의 것으로 간주됐다. 코란은 고리대금을 엄격히 금지했고, 상인들이 이자를 내지 않거나 지나친 재물을 축재하는 것을 감시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돈의 역사는 3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은화’라는 뜻의 인도어 루피아에서 파생한 ‘루피’의 역사는 1835년 영국 동인도회사가 새 루피 은화를 도입하면서 시작된다. 자타가 경전에 나오는 구매와 판매 계정 등은 고대 인도에서 돈으로 큰 상거래를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과 극동지역의 주화는 가운데에 사각형 구멍이 있는 작고 둥근 독특한 청동주화다. 사각형의 구멍은 땅을, 둥근 주화는 하늘을 상징한다. 그 주화를 만든 황제는 하늘과 땅의 상징적 연결을 맡는데, 이런 모양은 제조나 유통에서도 실용적이었다. 기원전 3세기 시황제는 자국의 화폐를 진제국의 기준으로 삼고 ‘반량(半兩)’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한무제가 만든 ‘오수(五銖)’는 제국의 확장과 함께 멀리 퍼져나갔고, 당 고조 때 새로운 도안의 주화 ‘개원통보’로 대체된다.

15세기 후반 유럽통화는 변화의 시대로 접어들다. 르네상스시대 예술의 영향으로 주

화의 모양이 변하고, 돈의 공급이 늘어났으며 지리상 발견의 시대를 맞아 세계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유럽 통화체제의 범주는 상업과 식민지 확대와 아울러 전세계로 확대됐다. 18, 19세기에는 주화와 더불어 지폐가 점점 더 많이 공급돼 초기 근대 유럽의 새로운 요소로 등장, 돈에 대한 유럽인들의 생각과 사용방식을 변화시켰다.

18세기 이후 자기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들이 문을 열었고 대규모 은행의 장점이 드러났다. 이제 금과 은은 돈이나 교환가치의 상징이 아니며 지폐나 신용카드를 귀속속의 대용품이라 생각지도 않는다. 그만큼 200년 동안 돈의 가치의 근원이 혁신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돈과 근대 경제학적 사고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은 경제적 삶을 지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과정이 매일 세계 통화시장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약한 통화는 위협에 처해 경제정책은 하룻밤에 낡은 것이 됐다. 화폐와 경제이론으로 돈을 철저히 이해하고 통제하리란 예상은 빗나갔다. 탈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돈이 취하는 형태와 돈을 얻는 방법 모두 점점 비물질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형태도 없는 것의 그 강력한 힘에 화폐의 역설이 존재한다.

저자는 이 책을 서술하면서 서구의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서술하지만 여전히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한국 최초의 주화가 996년 만들어졌다고 썼는데, 역자(이인철)는 《동국사략》, 《해동역사》의 문헌을 들어 기자조선 흥평왕 때 (기원전 957년) 최초의 화폐인 ‘자모전’을 사용했음을 밝혔다. <김지원> 까지 /A5신/256면/12,000원